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한국진출 결정요인 분석: 글로벌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2024. 11. 29.

권일숙(한남대 부교수)
오준석(숙명여대 교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재편에 따라 脫중국화를 주저했던 다국적기업들은 현재 'save harbor base'를 고려하여 기존 중국에 구축한 생산과 공급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은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공급망 재편의 기회이자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 일본, 베트남, 인도 등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함
- 이를 기회요인으로 십분 활용하여 중국이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이 공급망 재편에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함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FDI 시계열 데이터는 무너졌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기에 향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가장 적합한 방법임
- 본 연구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의 정점과 개선할 점을 파악하여 한국이 매력도를 갖춘 투자허브가 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롭게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확인하고자 함
 - 즉 산업의 외부환경에 따른 요인들을 통해 기회와 위협 측면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틀로서 SCP 모델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조사·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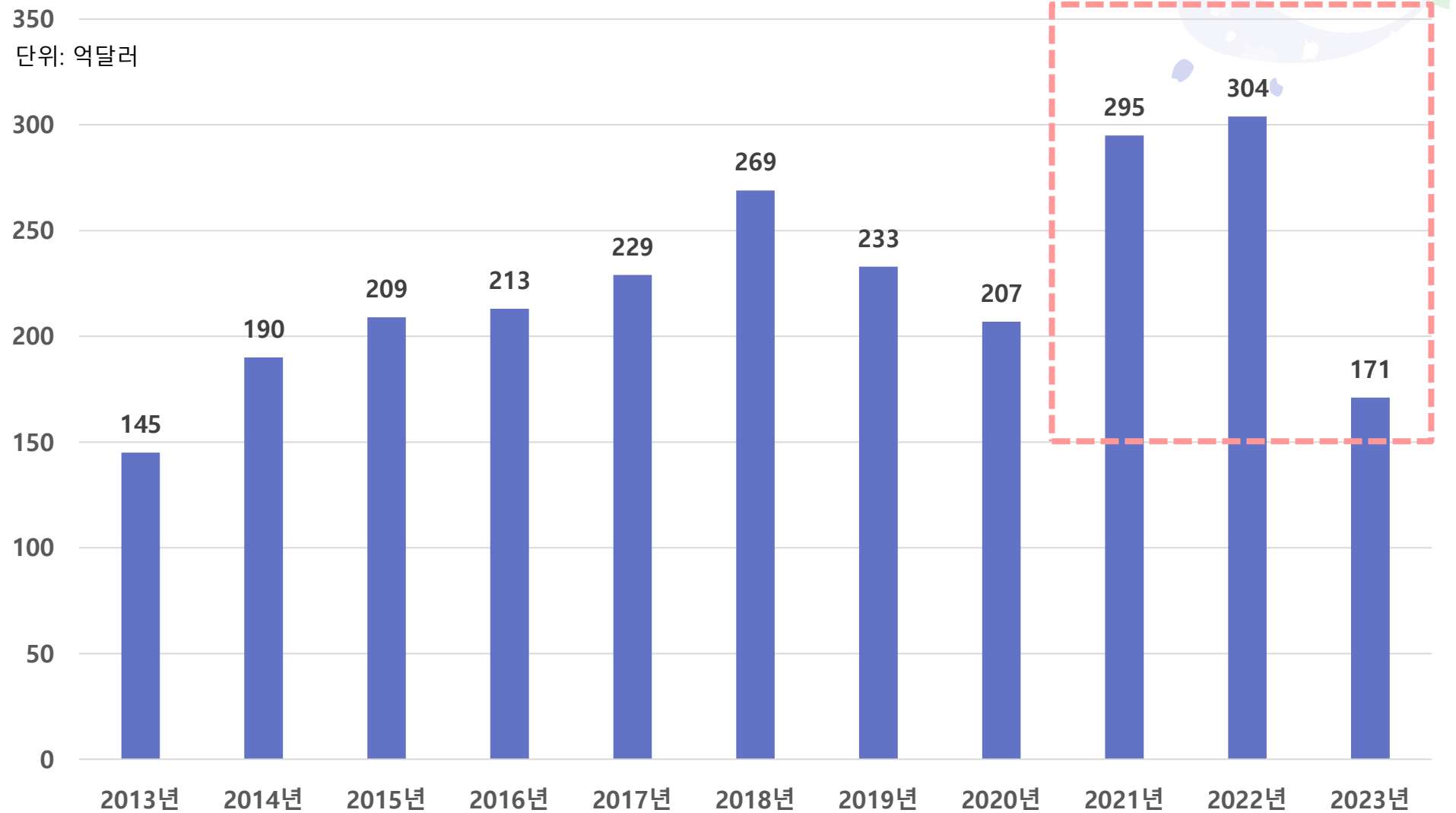
글로벌 자금동향 및 아시아 증시(2023년2분기)



자료: 블룸버그·윈드(WIND)·삼성증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57087?cds=news_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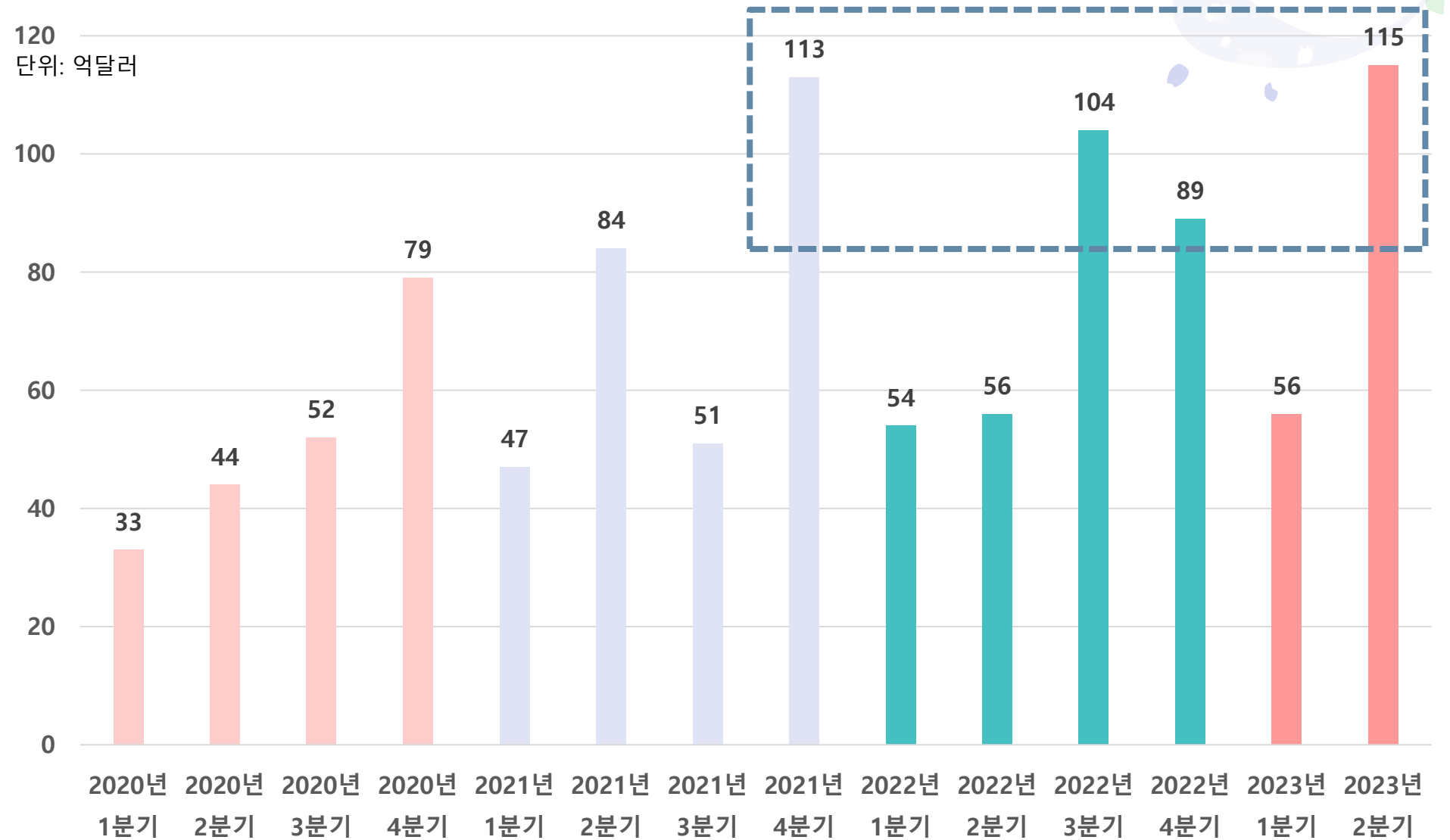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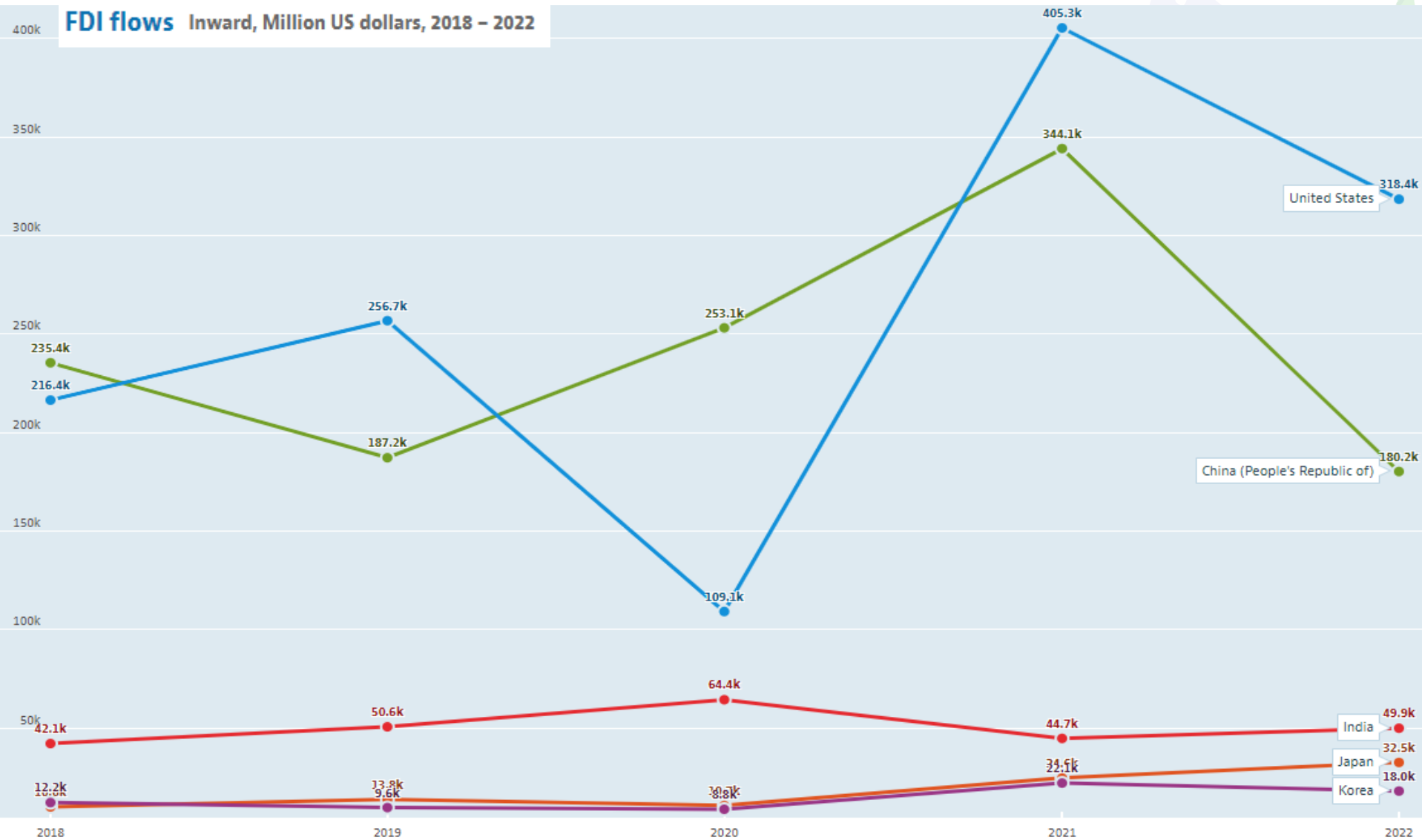
주: 2023년은 1월~6월 집계금액

분기별 외국인직접투자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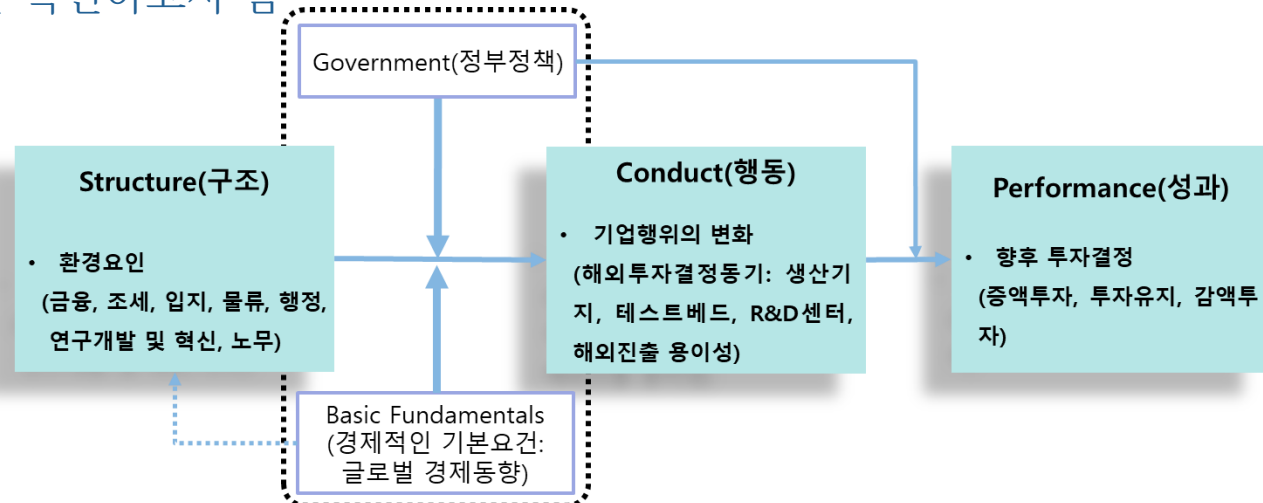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액 비교 (2018-2022)



자료: IMF DATA

연구모형

- SCP 모델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산업을 분석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으며, 구조(Structure) - 행동(Conduct) - 성과(Performance) 모형으로 산업구조에 따라 기업의 행동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성과가 창출된다는 이론임
- 구조(Structure)는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7가지 환경요인을 제시하여 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 환경요인은 금융환경, 조세환경, 입지환경, 물류환경, 행정환경, 연구개발 및 혁신환경, 노무환경으로 구성됨
- 행동(Conduct)은 구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투자결정에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외자유치 인센티브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행위의 변화(외국인직접투자 결정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성과(Performance)는 기업행위의 변화를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향후 한국을 '테스트베드', 'R&D센터' 및 'FTA 네트워크'로 활용할지 살펴봄
- 나아가 정부정책(Government)과 경제적인 기본요건(Basic Fundamentals)이 기업의 투자와 향후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표본 및 연구방법론

- 설문조사: 해외에 투자 또는 투자진행 중인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사장 혹은 임원 대상
- 조사기간: 2023년 2월~3월
- 표본자료: 본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총 95개이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11개를 제외하고 84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음
 - 분석대상 84개 기업 중 본사 위치가 해외인 경우가 70개(83.3%)이며, 국내인 경우가 10개(11.9%), 무응답이 4개(4.8%)임
- 분석방법: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다중회귀분석(SPSS)
 -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갖고 있기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진행함 (결과제시 생략)
 -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의미있는 구조변화(환경)의 6개 요인(금융 및 조세환경, 입지환경, 물류환경, 행정환경, 연구개발 및 혁신환경, 노무환경)과 정부정책, 글로벌경제동향 및 기업의 행위 요인 각 1개로 축소함 (결과제시 생략)
 - 신뢰성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0.79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요인적재값도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됨 (결과제시 생략)

표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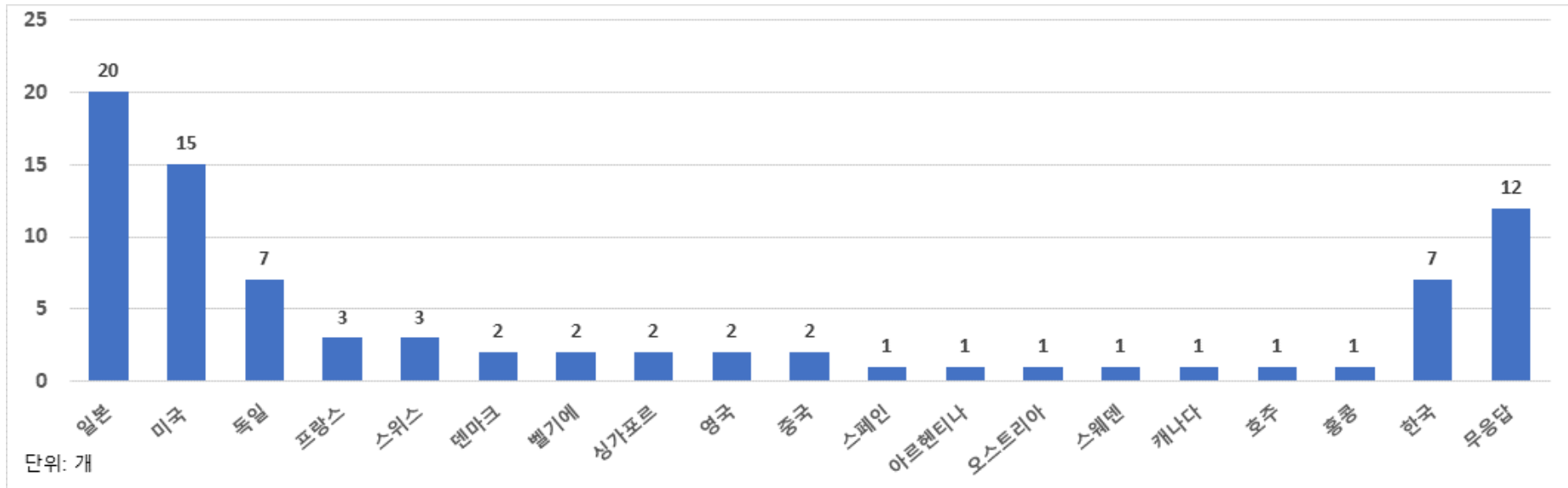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기업수	비율
전체		84	100.0
본사 위치	한국	10	11.9
	해외	70	83.3
	무응답	4	4.8
업종	제조업	46	54.8
	비제조업	38	45.2
설립 연도 (한국)	1~5년	26	31.0
	6~10년	12	14.3
	11~20년	10	11.9
	21~30년	11	13.1
	31~40년	12	14.3
	40년 이상	5	6.0
	무응답	8	9.5
기업규모 (종사자 수)	30명 미만	22	26.2
	30~99명	17	20.2
	100~499명	16	19.0
	500~999명	6	7.1
	1,000~9,999명	10	11.9
	10,000명 이상	2	2.4
	무응답	11	13.1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본사국적

■ 한국진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본사 국적

- 일본 20개, 미국 15개, 독일 7개, 프랑스와 스위스가 각 3개, 덴마크,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및 중국 각 2개, 스페인,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호주 및 홍콩 각 1개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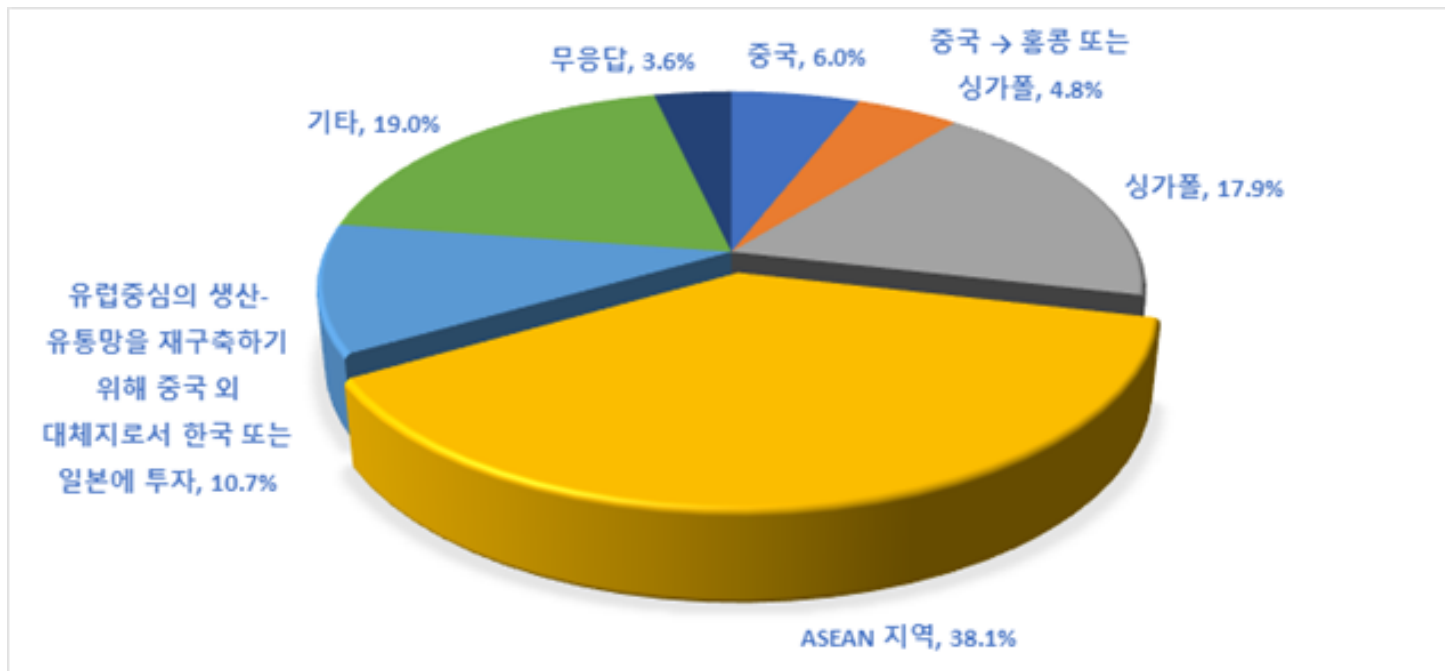


표본기업이 투자한(투자진행 중) 지역 및 국가

■ 기업이 투자한(또는 투자진행 중인)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SEAN지역’이 38.1%(32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싱가포르 17.9%(15건), ‘유럽 중심의 생산-유통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중국 외 대체지로서 한국 또는 일본에 투자’ 10.7%(9건), 중국 6.0%(5건), ‘중국 → 홍콩 또는 싱가포르’ 4.8%(4건), 기타 19.0%(16건), 무응답 3.6%(3건)으로 나타남

표본기업이 투자한(투자진행 중) 지역 및 국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과 함께 진출을 고려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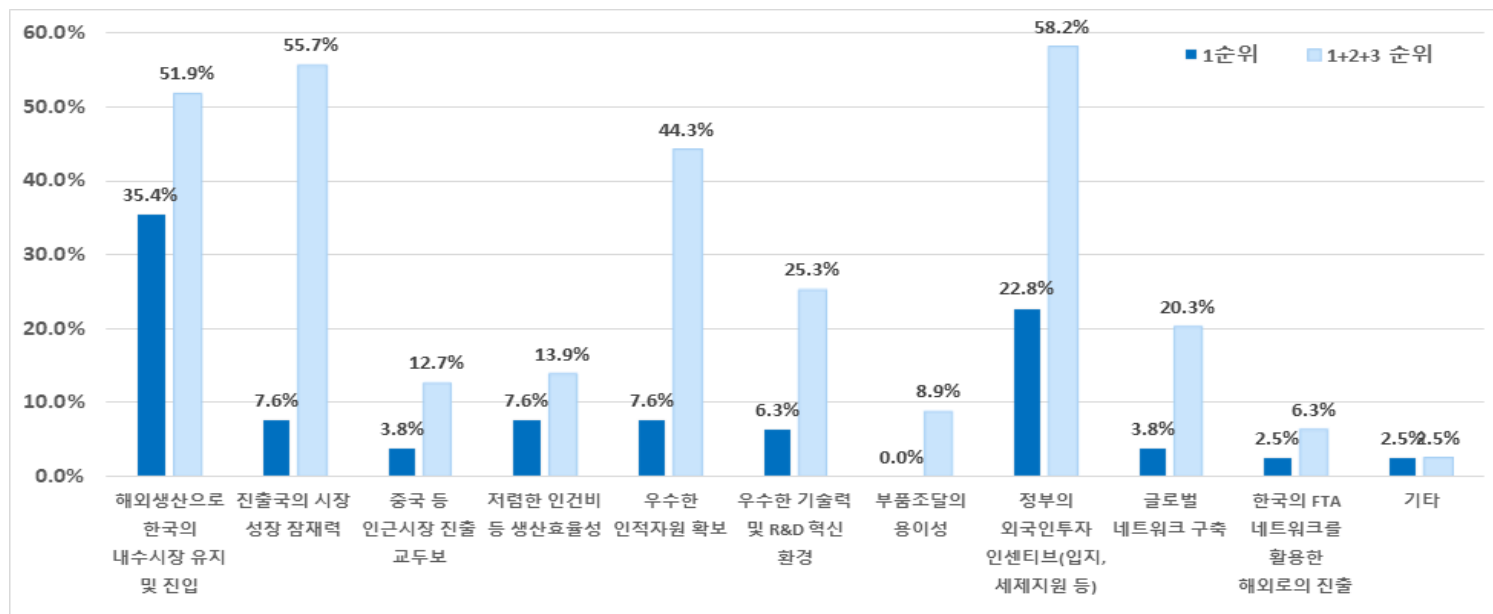
■ ‘귀사가 한국 진출 결정 시, 한국과 함께 고려하셨던 진출 후보 국가는 어디인지?(중복응답가능)’ 질문에

- 중국 23.4%(37건), 대만과 싱가포르 12.0%(19건), 일본 11.4%(18건), 베트남 10.8%(17건), 인도 6.3%(10건), 태국 5.7%(9건), 홍콩 4.4%(7건), 기타 13.9%(22건)로 나타남

구분		N	비율
한국 진출 결정 시, 한국과 함께 진출 후보로 고려한 국가	중국	37	23.4
	일본	18	11.4
	홍콩	7	4.4
	대만	19	12.0
	싱가포르	19	12.0
	베트남	17	10.8
	태국	9	5.7
	인도	10	6.3
	기타	22	13.9
전체		1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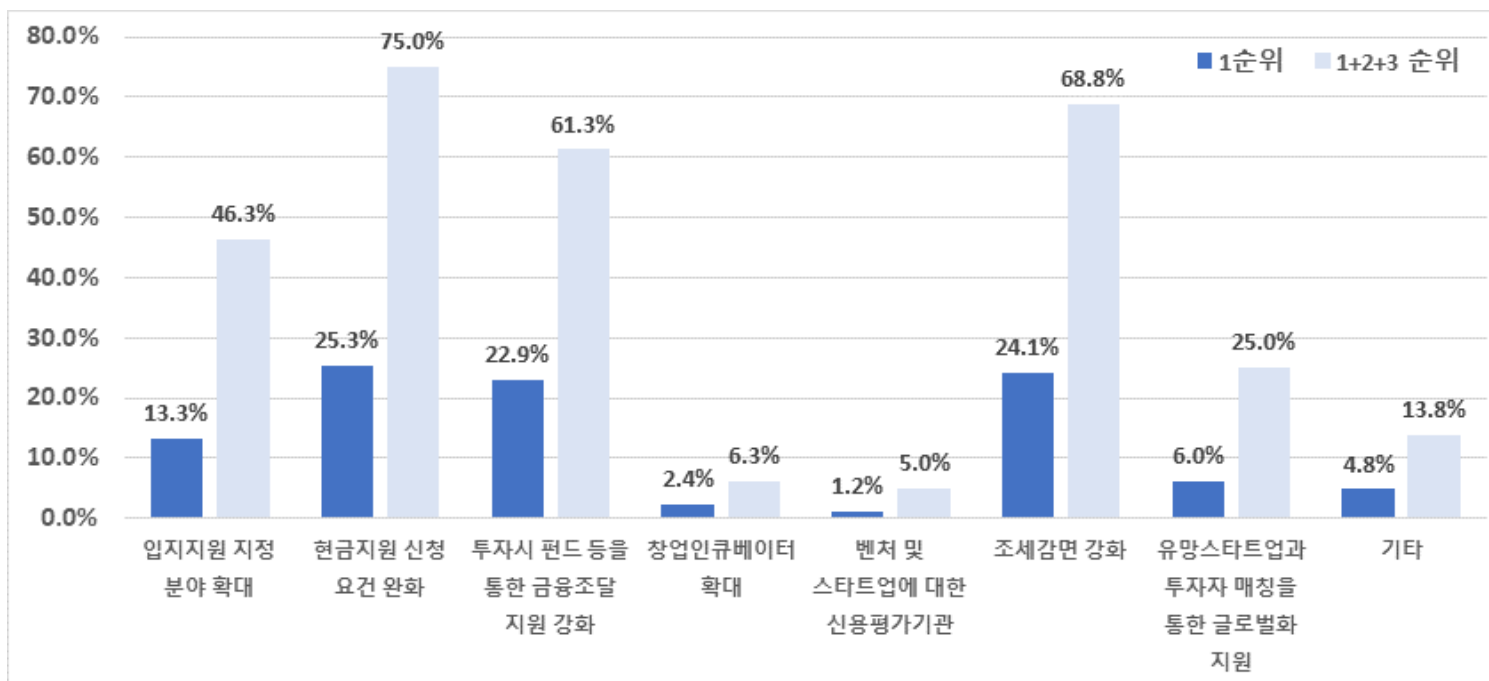
한국 투자결정 중요 고려요인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으로 투자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와 1+2+3순위 누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우선 1순위를 살펴보면, ‘해외생산으로 한국의 내수시장 유지 및 진입’이 35.4%(28건)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입지, 세제지원 등)’이 22.8%(18건), ‘진출국의 시장성장 잠재력’,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효율성’ 및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각 7.6%(6건) 순으로 나타남
 - 1+2+3순위의 누적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입지, 세제지원 등)’이 58.2%(46건), ‘진출국의 시장성장 잠재력’이 55.7%(44건), ‘해외생산으로 한국의 내수시장 유지 및 진입’이 51.9%(41건) 순으로 나타남



한국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확대가 필요한 분야

-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확대한다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 우선 1순위를 살펴보면, ‘현금지원 신청요건 완화’가 25.3%(21건)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세감면 완화’가 24.1%(20건), ‘투자 시 펀드 등을 통한 금융조달 지원 완화’가 22.9%(19건) 순으로 나타남
- 1+2+3순위의 누적결과를 살펴보면 ‘현금지원 신청요건 완화’가 75.0%(60건)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세감면 강화’가 68.8%(55건), ‘투자시 펀드 등을 통한 금융조달 지원 강화’ 61.3%(49건) 순으로 나타남



기술통계량(1)

잠재변수	측정 문항	평균	표준편차
금융 및 조세 환경	높은 대출 금리 및 수수료	3.43	0.997
	자금조달 절차 복잡	3.43	1.021
	외환거래 자유화 정도	3.49	1.012
	자금조달의 어려움	3.32	1.043
	외환거래, 주거래 은행 지정 제도	3.12	1.034
	대출시 행정처리 지연	3.18	1.088
	은행, 정부 기관 직원과 외국어 의사 소통	2.99	1.000
	높은 조세 부담	3.56	1.144
	세무행정 투명성	3.51	1.024
	세무 조사 관련 애로 (과다 서류 요구, 조사 장기화 등)	3.56	1.068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애로	3.35	1.012
	조세불복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애로	3.32	0.984
	비법한 세법 개정에 따른 애로	3.33	1.022
	연말정산 관련 공제 항목 부족	3.04	.950
입지환경	공장 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4.02	.957
	수도권 신규 공장 및 빌딩 증축/신축 제한	3.54	1.023
	담당 관청 행정 처리 지연	3.69	1.097
	복잡한 입지 보조금 지원 요건	3.42	.934
물류환경	높은 운송 비용(항만, 항공, 육상)	3.45	1.091
	높은 보관비용(물류창고 비용)	3.46	1.069
	물류서비스 수준	3.39	1.006
	물류정보시스템 미흡	3.20	1.073
	낮은 물류연계망	3.23	1.068
	물류 관련 행정 절차	3.35	1.092
	도로 교통 체증	3.36	1.094
	인접 공항 부재	3.14	1.066
행정환경	행정 처리 절차	3.79	0.793
	행정 처리시 비합리적 관행	3.57	0.948
	행정처리를 위한 제출서류 복잡	3.56	0.896
	업무소관 부처 불분명	3.45	0.911
	행정처리 담당자와의 외국어 소통	3.30	0.788
	행정처리 소요 시간	3.57	0.781
연구개발 및 혁신 환경	혁신, 연구개발 유인 부족	3.21	0.958
	산학협력의 어려움	3.18	1.184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미약함	3.18	1.077
노무환경	해고 경직성	3.55	1.023
	높은 임금수준	3.55	1.034
	복잡한 임금체계	3.30	1.039

기술통계량(2)

잠재변수	측정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부정책	한국의 정부 또는 지자체의 규정이 경영활동의 애로로 작용	3.92	.924
	한국의 정부 또는 지자체에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용이성	3.59	.797
	한국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행정 및 규제관련 정보취득의 편의성	3.82	.977
	한국의 정치·사회제도의 상대적 안정성	3.77	.782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입지, 세제 지원 등)의 매력도	4.00	.956
글로벌 경제동향	원자재가격변동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46	.891
	미중 경제전쟁과 공급망재편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88	.778
	환율변동의 심화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98	.944
	금리상승으로 인한 변화는 한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56	.840
	무역수지의 변화는 한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57	.839
기업행위의 변화	한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여 중국 등 기타 시장에 판매가능성	3.37	.946
	한국의 우수한 인력확보로 R&D 센터로 활용가능성	3.39	1.016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로의 진출이 용이성	3.34	.893
향후 투자결정	현재의 성과를 볼 때 증액투자를 할 것이다.	3.83	.909
	그냥 있어도 성과가 나기 때문에 머무를 것이다.	2.89	.725
	현재의 성과를 볼 때 점진적 감액투자를 할 것이다.	2.18	.864

실증분석1 : 환경이 기업행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9	.090		-.217	.829
금융및조세환경	.411	.090	.405	4.559	.000
입지환경	-.113	.090	-.111	-1.250	.215
물류환경	.133	.090	.131	1.472	.145
행정환경	.078	.090	.077	.868	.388
연구개발및혁신환경	.468	.090	.461	5.189	.000
노무환경	.114	.090	.113	1.268	.209
N	84				
adj-R2	.377				
F-Statistic	8.967***				

*p<0.1, **p<0.05, ***p<0.01

실증분석 2: 정부정책과 글로벌 경제동향이 기업행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00	.110		.000	1.000
정부정책	-.090	.111	-.090	-.815	.417
글로벌경제동향	.027	.111	.027	.246	.806
N	84				
adj-R2	-0.016				
F-Statistic	0.363***				

*p<0.1, **p<0.05, ***p<0.01

실증분석 3: 기업행위의 변화가 향후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16	.257		10.190	.000
한국의 혁신환경을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로 이용가능성	.116	.087	.210	1.335	.186
한국의 우수한 인력확보로 R&D 센터로 활용가능성	.189	.091	.366	2.071	.042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로의 진출이 용이성	.074	.079	.125	.942	.349
N	84				
adj-R2	0.226				
F-Statistic	2.730***				

*p<0.1, **p<0.05, ***p<0.01

결론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구조변화(환경)가 기업행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및조세’와 ‘연구개발 및혁신’ 환경요인은 기업행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로 투자할 때 ‘금융및조세’와 ‘연구개발및혁신’ 환경이 기업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 다음 정부정책과 글로벌 경제동향이 기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정책과 글로벌 경제동향은 기업행위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투자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거나 국내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감액투자 혹은 철수할 의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임
- 끝으로 기업행위의 변화가 기업의 향후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출국의 우수한 인력확보로 R&D센터로 활용가능성’이 기업의 향후 투자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하기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R&D센터로의 매력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시사점

- 첫째 ‘금융및조세’: 높은 조세 부담, 세무 조사 관련 애로; ‘입지’: 공장 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물류’: 높은 보관비용; ‘행정’: 행정 처리 절차; ‘연구개발 및 혁신’: 혁신, 연구개발 유인 부족; ‘노무’: 높은 임금수준, 해고 경직성 등 개선을 위한 노력 요구됨
- 둘째, 정부정책의 경우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입지, 세제 지원 등)의 매력도가 가장 높았지만, ‘한국의 정부 또는 지자체의 규정이 경영활동의 애로로 작용’ 하기에 해당 부분은 개선이 필요
- 셋째, 해외투자결정요인으로 우수인력의 확보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중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고 우위를 지니고 있기에 향후 이를 십분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
- 넷째, 그외 한국의 경우 ‘테스트베드로 이용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향후 혁신환경을 잘 조성하여 테스트베드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